



3면

기계부 2차관에 전주 현안사업 지원 건의

전주매일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음 8월 28일) 제31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세계 금융·경제 네트워크 중심으로

제3회 지니포럼 개막

전북도-균형위-전주시
국민연금 등 협업 개최

오늘까지 한옥마을 일원서
균형발전 등 이슈 다뤄

전라북도를 세계 금융·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의 석학들이 모이는 '제3회 지니포럼(GENIE Forum)'이 성황리에 개막했다.

지니포럼은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전주시(시장 우범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등 11개 기관이 협업해 개최하는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행사로 올해 제3회를 맞았다.

이틀에 걸쳐 2개의 메인행사(개막식,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6개 연계행사(균형발전 컨퍼런스, 스토리지 데모데이, 기후환경세미나, 베타투게더챌린지, Green Dialogue, 열린발표)로 구성개최된다.

22일 리안호텔 온고를 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국제조직위원회와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이 이뤄졌다.

개막식은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개최사와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국민연금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영상축사, 김성주 국회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전주시 리안호텔 온고홀에서 열린 제3회 지니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원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및 해외 대사와 도시 대표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금융·경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천적인 추진력으로 세계적인 공적을 쌓은 혁신가를 대상으로 1만불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는 '지니아워즈' 시상식이 포함됐다. 지난 수상자는 오바메카단(제1회)과 구자열 IS회장(제2회)으로, 제3회 수상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또한, 전통과 사람의 도시인 전주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연과 지니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국제조직위원회 위원들의 참여형 퍼포먼스가 개막식의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과 동일한 장소에서 오후에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IC)에서는 '자산운용의 미래와 지역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전북도의 금융도시 모델을 구체화하고, 연금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지는 1세션에서는 정삼영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세계경제 흐름과 대체투자'에 대해 논했다. 에너지와 지역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대상 중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이슈를 다루는 연계행사가 위원들의 참여형 퍼포먼스가 개막식의 의미를 더했다

22일에는 리안호텔 기와마루홀에서

'포괄적 성장과 균형발전 해법'이라는 주제로 '균형발전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지니포럼, 조직위원회, 상생협력단, 국제협력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는 지리가 됐다.

23일에는 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창업스타트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스토리지 데모데이(STORAGE Demoday)'가 리안호텔 온고를 홀에서 열린다.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생존을 넘어 성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의 위기극복 노하우 공유와 IR 피칭을 통한 투자연계가 이어진다.

이밖에도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기후변화센터 주관으로 '금융혁

신을 통한 기후행동 가속화',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월드컬처오픈 코리아가 주관하는 '2022 Better Together Challenge', 리안호텔에서 KAIST가 주관하는 '열린발표 뉴노멀시대의 디지털 전환', 전주 한옥마을 야외공간에서 사단법인 '풍네삼촌들'이 주관하는 'Green Dialogue' 캠페인 등이 펼쳐진다.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김관영 도지사는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새로운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에서 세계 금융·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모이는 제3회 지니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전북도에서 세계 금융을 한눈에 읽는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선녀들을 만나다"

사선문화제, 23-25일

입실 사선대 일원서

입실군이 23일부터 25일까지 사선대 일원에서 사선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선문화제는 사선대에서 놀다 간 사선산과 사선녀 설화를 바탕으로 30여년간 지속해온 향토축제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다.

사선선녀신위제, 소흥사선문화상시상식, 사선선발대회 외에도 전국품비각살이 명인전, 아미별제 윈드오케스트라, 호남좌도농악경연대회,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소흥사선문화상 시상식에서는 각 분야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를 발굴했다.

대상에 이항중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특별상에 최완규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 문화예술부문에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 언론부문 박승준 아주경제신문논설고문, 모범공직부문 김성 장흥군수, 교육부문 김윤자 이종중학교 교장, 농업부문 안승일 나동축산운동본부 사무총장, 경제부문 이요순 농업법인 이사 대표이사, 향토봉사부문 임인규 전주농업협동조합장이 수상할 예정이다.

또한 25일 열리는 축하공연에는 방송인 이용식의 사회로 김태연 송대관 김병룡 배일호, 오로라, 소명 등 10명의 가수가 출연하여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줄 예정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선문화제위원회(063-643-3988) 또는 입실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63-640-2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입실=진홍영기자

전주에서 함께 부르는 '혁명의 노래'

세계혁명예술 전주국제포럼, 오늘부터 이틀간 전라감영서
앞서 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 국제포럼 열려... 의미 재조명

△1871년 파리코뮌 △미국 흑인사회의 고통과 저항 △프랑스 혁명의 대서사인 레미제라블, 남미 민중들의 한을 담은 탱고음악 등 세계적인 저항운동과 혁명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노래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특히 첫날 오후 7시에 열리는 교향

악단의 공연에는 세계적인 비올리스틴 예프란 리사파 바이올린의 신시아 등이 출연할 예정이어서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연주로는 동학농민혁명의 대표 음악인 '새아재야 파랑새야'를 중심으로 진

혼곡 등이 준비돼 있다.

이어 24일로 예정된 국악단의 공연은 '레미제라블'과 '브레이브 하트' 등 널리 알려진 영화들과 한국 혁명사극의 OST를 재해석해 국악기와 관소리로 들을 수 있는 공연으로 꾸며진다.

녹두장군 전봉준의 이야기를 담은 국악관현악단이 준비한 '녹두꽃, 전주에게'도 이번 국제포럼에서 첫선을 보인다. 국악단의 마지막 곡인 진

혼곡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의 농민군을 위한 곡으로, 전주시립무용부와 김제시립합창단이 함께 한다.

교향악단 공연은 23일 오후 7시에 펼쳐지며, 국악단 공연은 오는 24일 오후 4시 30분과 7시 30분의 2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공연은 전주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22일 오전 10시 전주시립예술관 다목적실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이번 국제포럼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기획 및 준비과정을 소개하는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영화 '기생충' 등을 번역하며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번역가이자 작가인 달시 파켓(Darcy Paquet), 전주를 주무대로 활동 중인 연극연출가인 박병창 우석대 교수가 주제강연을 맡았다.

이어 이번 공연을 준비한 정기선 감독(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과 심상욱 감독(전주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가 나서 기획 의도와 준비과정, 공연의 의미 등을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